□ 연구논문 □ https://dx.doi.org/10.16936/theoph..44.202308.57

생태적 회개의 의미와 그 유형의 관계적 이해:
『찬미받으소서』와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홍태희 · 김문영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대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과정

들어가기
1. 회심론과 생태적 회개
1.1. 지성적·도덕적·종교적 회심과 생태적 회개
1.2. 심리적 회심과 생태적 회개
1.3. 사회적 회심과 생태적 회개
2. 생태적 회개의 상호 역동적 관계: 사례를 중심으로
2.1. 지성적 회심으로부터 도덕적, 종교적 회심으로
2.2. 종교적 회심으로부터 도덕적, 지성적 회심으로
2.3 심리적 회심과 사회적 회심
3.『찬미받으소서』와 생태적 회개
3.1. 회심론과『찬미받으소서』
3.2. 생태적 회개의 범위
나가기

들어가기

‘생태적 회개’라는 용어는 이제 가톨릭 사회 교리의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그리스도교는 1960년대에 이미 생태 위기를 초래한 정신적 원인으로 비판받은 역사를 갖고 있으나, 2015년 프란치스코 교종이 가톨릭 보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의 환경 및 생태 위기를 직시하며 생태적 회개를 촉구하는 회칙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1]를 반포함으로써 사회교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의 한 획을 그었다. 그것은 인간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사회교리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정의로운 관계로 확장되어 전환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생태 위기의 시대적 표징 하에서 자연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재정향 하는 것으로서 회칙에 제기된 ‘생태적 회개’라는 용어가 여러 곳에서 회자되고 있지만, 그 용어가 보다 분명한 의미를 갖고 공통된 기반에서 논의되기에는 아직 개념의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회개란 심리적 혹은 추상적, 때로는 형식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변화가 수반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편적 인간 사회 안에서 자연과의 관계에 관한 성찰이 요구되는 ‘생태적 회개’에 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해서는 “주체와 그의 세계의 변형”(transformation of the subject and his world)[2]이라는 명제로 인간 존재 지평의 중대한 변화로서 ‘회심’(conversion)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였던 버나드 로너간(Bernard Lonergan, 1904-1984)의 분석이 의미 있는 접근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신학 방법』 *Method in Theology*을 통해 회심의 성격을 지성적, 도덕적, 종교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로너간의 회심론을 확장하여 발전시킨 도날드 젤피(Donald L. Gelpi, 1934~)는 회심의 유형들 간의 역동성에 관한 분석에 공헌하면서 큰 틀에서 사회적 회심을 개인적 회심과 구별하여 회심론을 전개하였다. 또한 로버트 도란(Robert Doran, 1939~)은 로너간의 회심 이론에 심리적 회심의 개념을 보다 의미 있게 부각하였다.

생태적 회개의 개념을 이와 같은 회심론 범주의 일반적 맥락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의 죄의식과 연관된 특수한 형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이

1) 프란치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교황 회칙』 (Laudato Si’), 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2021). 이하 LS.

2) Bernard Lonergan, *Method in Theology*, Lonergan Research Institud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0), 130.; 『신학 방법』, 김인숙·이순희·정현아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2), 187.

해하는 것보다 세계와 연관되어 실질적 전환을 이루어 가는 것에 보다 진정성 있는 접근의 방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이 용어의 개념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이해 가능한 명확한 공통의 기반을 갖지 못한다면, 교회가 제기한 '생태적 회개'란 창조주에 관한 신앙 고백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기후 변화와 생태계 다양성의 위기적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개인과 사회적 가치를 재정향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전개하는 것이 심리적, 영성적 변화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은 생태적 회개가 사회적 생태환경운동이나 환경보호를 기본 가치로 하는 정당 활동과도 구별되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찬미받으소서』는 제6장 '생태 교육과 영성' 안에서 별도의 한 주제로 '생태적 회개'(216-221항)를 다루고 있지만, 이 부분의 설명은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의미 안에서 회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회칙의 전반적인 맥락은 종교적 주제에 한정되지 않고, 가난한 이들과 착취되는 지구의 관계, 인간중심주의의 반성, 모든 피조물의 고유한 가치, 세계의 상호 연결성, 통합생태론 등 생태적 회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프란치스코 교종의 호소에 대한 응답 즉 실천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에서의 죄에 관한 회개 뿐 아니라 생태위기를 초래한 원인에 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회심 과정이 동반되는 것이어야 한다. 생태적 회개가 교회를 넘어 세계의 보편적 가치를 포함한 문화, 경제, 정치 등 인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의 통합적 전환을 의미한다는 인식은 교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 진리의 중요성을 축소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 안에서 개인의 전체적인 삶의 과정을 통해 이루지는 신앙의 프락시스로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회심의 다양한 구조를 통하여 생태적 회개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1. 회심론과 생태적 회개

로너간은 『신학 방법』에서 회심을 단순한 영적 성장이나 일련의 발전 혹은 마음 바꿈과는 구별되는 전인격적 전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인식 방법이나 삶의 양식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평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삶의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는 '급전환'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3] 그렇지만 지속적이며 일관된 자기 초

월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급전환의 과정에서 로너간이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회심의 깊이에 관한 것, 즉 회심자의 '진정성'(Authenticity)이다. 로너간은 지평의 확장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관으로 진출하게 되는 회심을 그 발생 형태에 따라 지성적, 도덕적, 종교적 유형으로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환은 각각 독립된 영역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적으로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며 변증적 관계에서 서로를 견인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1. 지성적·도덕적·종교적 회심과 생태적 회개

로너간은 사실관계에 관한 지적인 파악과 합리적 확인을 통해 "보다 명료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재, 객관성 및 인간 지식에 관한 매우 완고하고 오도하는 신화를 제거하는 것"[4]을 지성적 회심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정확한 인식이란 감각적인 경험을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올바른 판단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경험에 참여라고, 질문을 제기하고, 확인을 계속하는 일련의 과정이 중요하다. 지성적 회심이란 특정한 관점을 갖고 그 입장에 서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세상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으로서, 즉 열린 세계를 지향하며 존재 가능한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인식론적 차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는 기후 변화와 줄어드는 생물종의 개체수와 다양성 등의 생태 위기를 시대적 징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의 현상에 관하여 고정 관념이나 편견, 그리고 특정한 당파적 입장을 최대한 제거하여 비판적 실재론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자세가 지성적 회심을 위한 통찰의 바탕이 된다. 그 과정에서 실재의 온전한 사실에 관한 인식에 도달하려는 마음가짐을 출발점으로 하여, 회심은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까지 포함한다. 우주를 이해하는 기준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뀜으로서 세계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듯이, 신에게서 인간으로 시선을 돌린 르네상스 이후 근대주의 정신 아래에서 산업화 및 이데올로기에 의해 더욱 일방적으로 고착되어온 세계에 관한 인간 중심의 인식 방법은 이제 생태 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인식 방법으

3) Lonergan, *Method,* 237-238.; 『신학 방법』, 329.
4) Ibid., 238.

로 전환이 요구된다. 그것은 인간을 지구의 주인으로 자연을 도구적 존재로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구를 모든 피조물의 '공동의 집'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실관계의 인식방법에 관한 지성적 회심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성적 회심은 상황을 단순하게 탐구하고 설명하는 기술적(descriptive) 알아감으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설명적(explanatory) 알아감으로 전환이 요청된다.[5] 생태적 회심에서 모든 피조물 간의 상호연결성에 관한 검증 가능한 이해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자연에 관한 감성적인 연민으로만 남을 수 있다. 우리 세계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중적이고 상호연결적인 모습과 모든 실재의 복잡성은 기존의 근대적 특정 이론에 따라 합리적 이해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며, 때로는 더 이상 적절치 못한 부적합한 상식을 넘어선 이해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는 날씨에 대하여 기존의 상식을 넘어서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설명적 알아감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성에 의한 자연의 지배와 착취 논리를 단순화하고 있는 현대의 인간중심주의 문화에서 자성적 회심은 생태적 전환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왜곡된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우주론적 뿌리를 잊고 있다는 점에서 지성적 회심에 의해 우주론적 의미와 연결성에 관한 이해를 재정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단순히 과거의 신화적 이해로 회귀한다거나, 이성을 백안시한 초월적 상상력으로 접근하거나, 혹은 뉴에이지적 접근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 또한 지성적 회심이 생태적 회심을 위하여 필수적일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여 준다.

로너간이 설명하는 도덕적 회심은 가치 관계의 전환과 관련된다. 그는 "*자신의 결정과 선택의 기준을 만족에서 가치로 바꾸는 것*"[6]을 도덕적 회심이라고 설명하며, 도덕적 회심을 통해 주체는 단순한 만족 추구로부터 자신을 초월하여 진정으로 선과 가치를 지향하게 된다고 보았다. 우리는 어떤 지향을 갖게 될 때 단지 개인 욕구의 만족을 추구해야 할지, 아니면 객관적 가치를 갖는 선을 따라야 할지에 관한 실존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 순간 객관적인 가치를 따라 주체적 결정을 거듭하는 과정은 도덕적 자기 초월의

5) Neil Ormerod·Christina Vanin, "Ecological Conversion: What Does it Mean?", *Theological Studies*, 77(2016), 344,

6) Lonergan, *Method,* 240.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주체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책임지는 주체로 전환하게 된다.[7]

도덕적 회심이란 도덕적 완전성의 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체가 도덕적으로 진정성 있는 삶을 시작하려고 결단하는 자기 초월을 계속하여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가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덜한 가치로부터 더한 가치로 옮겨가며 자기 발전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성적 이해와 달리 관념적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해 가는(*heuristic*)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형이상학적 의지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에 의해 결정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개인적 사회적 편견에 지배되지 않는 초연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로너간은 지식과 도덕에 있어서 그러한 초월의 과정은 우리의 삶이 보다 진정성 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성적이 되고, 합리적이 되고, 책임 있게 되는 것*"[8]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환경 파괴가 초기부터 고의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려는 악의적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대량 생산과 쓰고 버리는 문화가 지구 환경과 피조물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무지하였거나 혹은 인식 부족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인간중심적 기술-지배 패러다임 하에서 산업화의 결과에 관한 인식 부족이 이윤과 효율을 최고 가치로 하는 물신주의 사회 체제와 맞물려 그 영향은 가중되며 누적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환경 문제의 단계를 넘어 생태 위기의 단계로 진입하였다는 증거를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시대에 살게 된 것이다. 이제 인류에게는 현재의 편안함을 위하여 기존의 가치에 따른 행동 양식을 계속하여 위기를 가속화 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을 감수하고 가치의 전환을 통해 생활 양식을 생태적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도달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도덕적 회심은 생태적 회개와 관련하여 실천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자기만족을 희생하고 생태적 가치를 따라 생활양식을 전환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자기 초월적 결단을 계속하는 개인이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

7) Ibid.,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선택되거나 거부된 대상 못지않게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며, 스스로 무엇을 만들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는 실존적 순간으로 이동한다."

8) Ibid., 231.

진정으로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도덕적 회심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태적 회개를 사는 사람의 진정성은 그가 어떤 주거 양식과 음식, 교통수단, 소비 패턴을 선택하는지의 문제와 함께,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 얼마나 친교적이며 자연과 공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 드러난다. 도덕적 회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생태적 덕'이란 이러한 일상의 희생적이며 실천적인 삶을 통해 개발되고, 그의 회심한 삶이 이웃에게 영감을 주어 다른 사람 또한 새로이 전환되는 삶으로 초대하게 된다.

로너간은 신앙을 '종교적 사랑에서 탄생한 인식'[9]으로 보았다. 사랑이 없는 상태로부터 초월자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자신을 초월자의 사랑에 일치시키는 과정을,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에 사로잡혀[10]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초자연적 사랑에 빠지는' 종교적 회심으로 보았다. 여기서 종교적 회심이란 하느님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회심'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로너간이 영적(spiritual)이라는 단어보다 종교적(religious)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보다 보편적 용어로 말하고 싶은 의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11] 종교적 회심을 통해 세계의 모든 가치들은 초월적 가치의 빛과 영향 안에 배치되어 지평의 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종교적 회심은 인간 중심의 관점을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자 초월자이신 하느님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이끎으로써 생태적 회개의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 근거하여 피조물의 생태 중심을 넘어 삼위일체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적 생태론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 신앙이 없으면 원천적 가치는 사람이고, 최종적 가치는 사람이 가져오는 인간 선이다. 그러나 신앙의 빛 안에서 원천적 가치는 신적 빛과 사랑이고 최종적 가치는 전 우주이다. 그러므로 인간 선은 모든 것을 망라하는 선에 흡수된다.[12]

우주 만물은 하느님의 본성인 자기 초월의 열매이자 자기 계시이기도 하다. 창조주 하느님의 마음을 얻어 그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세계를 창조주의 의지대로 보호할 사명이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종교적 회심을 통해 이끌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

9) Lonergan, *Method,* 115.
10) Ibid., 240.
11) 변희선,「버나드 로너간의 회심론에 관한 소고: 신학자의 회심과 신학함」,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신학전망』, 125(1999.6), 35.
12) Lonergan, *Method,* 116.

인간중심주의 세계관의 극복은 피조물과 인간이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갖는 생태중심주의로의 전환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피조물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에 궁극적 가치를 두는 영적/종교적 회심을 통해서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

1.2. 심리적 회심과 생태적 회개

심리적 회심(Psychic Conversion)은 로너간 연구자인 로버트 도란[13]에 의해 부각된 개념이다.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해, 판단의 작용을 거치는 것은 지성의 작용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감지하고 상상하는 것, 욕망과 공포, 기쁨과 슬픔을 수동적으로 겪게 된다. 우리의 정신에는 이러한 의식 자체의 민감한 흐름과 관련 있는 심리적 차원이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심리적 회심에 관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정서적인 자기실현을 의미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즉, 알아감의 과정인 지성적, 도덕적 활동에는 어떤 감각과 기억, 이미지, 정서, 내어줌, 연속되는 상호주관적 반응 등이 수반되며, 이들의 일련의 흐름을 심리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질문을 던질 때, 그곳에서 발생하는 경험, 이해, 숙고, 판단의 과정에는 지성적 요소 뿐 아니라 감정적 차원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에 도달할 때 또한 지성적 차원의 변화 뿐 아니라 답을 얻지 못해 혼란스러울 때와는 다른 어떤 정서적 차원의 변화도 수반된다. 도란은 의식으로 통합되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전의식(pre-conscious) 정신의 작용에 주목하여, 무의식적으로 검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억압적 상태에서 탈피하여 진리와 선 및 의미를 추구하는 상태로 의식을 재정향(reorientation)하는 것을 심리적 회심이라고 파악하였다.[14] 즉 "심리적 회심이란 인지적, 도덕적, 종교적 존재로서 각성하고자 하는 지향과 감정적이고 상상적 요소가 있는 생명의 근본적인 운동 사이에서 의식의 연결을 설정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심리란 감각, 기억, 이미지, 감정, 의욕의 자발적이고 상호주체적인 반응의 흐름이며, 곧 그것은 지성적 도덕적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것이다."[15]

---

13) 로버트 도란(Robert Doran SJ)은 로너간이 자기 중심적 방식으로부터 보다 타자와 관련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언급한 심리적 회심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게 체계화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Psychic Conversion and Theological Foundations*(1990), *Incarnation and Redemption*(2000), *Theology and the Dialectics of History*(2008) 등이 있다.

14) Ormerod·Vanin, "Ecological Conversion", 332,

지성적, 도덕적 회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성적 통찰에 필요한 의식의 감각적 흐름은 두려움, 기쁨, 욕망 등의 이미지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 지성적, 도덕적 회심에 의해 극복해야 할 집단의 규범과 편견 또한 의식의 흐름을 왜곡한다. 즉 심리적 회심이란 이러한 내적 저항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특정하게 한정되어 고정된 폐쇄적 의식이나 행동양식 혹은 세계관으로부터 개방되어 자기 초월을 점진적으로 수행해가는 과정을 회심으로 이해한다면, 기술 지배의 패러다임 하에서 "고동치는 생명의 흐름, 생명의 움직임"과 같은 자연의 리듬과의 연결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현대의 문화는 생태적 감수성과 관련된 심리적 회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6] 즉 심리적 자기 초월이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와 자연과의 연결을 새롭게 구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지성적, 도덕적, 종교적 차원의 자기 초월의 회심에 이르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토마스 베리(Thomas Berry)가 우주 역사의 광대하고 경이로운 이야기를 통해 그 안에서 위대한 영을 통한 자연의 리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한 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역사를 통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습관적인 것에 대하여 새롭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에서 경이를 발견하고, 꽃이 피는 순서를 기억하고, 농본주의 관점에서 땅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 등 역시 심리적 측면에서의 생태적 회개의 요소가 되며, 이러한 친밀감의 회복은 지성적, 도덕적, 종교적 작용의 전반에 걸쳐 그 바탕이 된다.

『찬미받으소서』는 첫 항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피조물의 찬가를 상기시키며 시작한다.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누이며 어머니인 대지로 찬미받으소서. 저희를 돌보며 지켜 주는 대지는 온갖 과일과 색색의 꽃들을 자라게 하나이다.*"(LS 1) 이어서 2항에서 "*이 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LS 2)라는 말로 우리가 자연에 관한 무관심에서 돌아서서 자연의 고통을 느끼는 감수성을 회복할 것을 호소한다. 이것은 이어지는 위기의 원인에 관한 관찰(제1장), 판단(제2-4장), 실천(제5-6장)의 전제가 되며, 이러한 심리적 회심을 '순진한 낭만주의'라고 폄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15) Robert Doran, "What Does Bernard Lonergan Mean by 'Conversion'?", https://lonerganresource.com/media/pdf/lectures/What Does Bernard Lonergan Mean by Conversion.pdf, (University of St Michael's College, Toronto, Ontario, Canada, 2011), 5.

16) Ibid., 5-6.

우리가 자연과 환경에 접근하면서 이러한 경탄과 경이에 열려 있지 못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형제애와 아름다움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각적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지배자, 소비자, 무자비한 착취자의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밀한 일치를 느낀다면 절제와 배려가 곧바로 샘솟게 될 것입니다.(LS 11)

지성적, 도덕적, 종교적 회심의 전반에 걸쳐 알아감의 과정과 그에 관한 정서적 차원의 의식의 흐름을 연결하는 심리적 회심은 궁극적으로 내밀한 일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생태적 회개에 있어서 그것은 자연을 향한 친밀함, 감수성을 확장함으로써 창조주와의 일치를 추구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 사회적 회심과 생태적 회개

일반적 회심의 과정이 그러하듯 생태적 회개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가치의 전환을 포함한다. 로너간은 사회적 가치를 공동체의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작용하며 사회 전체의 생명적 가치를 좌우하는 질서의 선(the good of the order)[17]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로너간의 회심론에서 사회적 회심은 도덕적 회심의 범주 안에서 사회적 가치의 측면으로 검토되었지만, 젤피는 회심을 개인적 주체의 전환 뿐 아니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제도적 죄와 불의에 의한 희생자들에게 주목하는 사회정치적 영역을 분리하여 고찰하였다. 그는 "인간 경험의 다양한 영역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벗어나 책임 있는 행동을 결정하는 것"[18]을 회심으로 정의하며, 책임감이란 상황에 대한 응답, 자신의 행위가 적절한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윤리적 규범을 실현하는 것의 의미한다고 보았다.[19] 그가 말한 사회정치적 회심이란 "사회조직을 무반성적으로 수용하던 태도로부터 다른 이들과의 연대 안에서 사회 경제 정치적인 구조와 정의롭지 못한 요소를 개혁하려는 노력에 투신하는 것"[20]이다. 즉, 그 시대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제도적 억압으로부터 사회적 연대를 통해 정의로운 삶을 위한 사회 구조적 전환을 시도하는 노력을 개인적 회심의 영역과 구별하여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

17) Lonergan, *Method,* 31.
18) Donald L. Gelpi, *Committed Worship: A Sacramental Theology for Converting Christians,*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3), 17.
19) 심종혁, 「Donald L. Gelpi의 회심이론과 그 성격」, 서강대 신학연구소, 『신학과철학』, 13(2008), 8.
20) Gelpi, *Committed Worship,* 17.

오랫동안 회개 혹은 회심이란 죄의식을 기반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월적 주체에 대한 인식에 한정되어 왔다. 그렇지만 회심의 진정한 의미는 알아감 및 심리적, 사회적, 영적 차원에서 현재의 여러 제한된 지평들을 벗어나 거룩함, 선함, 진리, 아름다움으로 재정향되는 주체의 근본적인 초월 작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생태적 회개에 있어서 이러한 주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심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단지 또 다른 자기 욕망의 확신이나 의식의 허영, 거짓된 치장에 불과할 것이다.

회심에 있어서 순서나 우열은 없지만, 한 종류의 회심은 다른 형태의 회심에 영향을 주어 전체적 회심의 상승을 촉진한다. 종교적 회심이 궁극적 가치를 향하도록 하는 도덕적 회심을 자극하거나 사회 정의를 위해 투신하는 사회정치적 회심으로 이끌기도 한다. 사실관계에 관한 지성적 회심이 심리적 회심에 의해 활성화 되어 도덕적 회심으로 진출하고, 진정성 있는 도덕적 회심과 사회정치적 투신이 초월자와의 관계를 상승시켜주는 종교적 회심으로 이끌기도 한다. 이러한 회심의 역동성은 생태적 회개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지성적 회심에 있어서 생태 위기에 관한 객관적 데이터와 논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심리적 요인도 변화가 필요하지만, 생태 문제를 비과학적 이데올로기로 접근하는 것 또한 개방성을 기초로 하는 진정성 있는 회심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인간중심주의에 관한 성찰이 곧바로 생태중심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에서 하느님을 인식하고 예배하는 고유의 가치를 갖는 인간은, 영적/종교적 회심을 통해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느님의 생명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를 세계에 실현함에 있어서 연결되어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안에서의 인간의 책임에 관한 통찰을 이어가면서 회심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결국 자신을 통해 진실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현장과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반포된 이래 다양한 실천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관한 실천 사례를 생태적 회개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역동성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2. 생태적 회개의 상호 역동적 관계: 사례를 중심으로

『찬미받으소서』의 반포 이전에도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교회의 노력이 있어왔지만, 회칙은 생태적 회개 차원에서 신자들이 더욱 창조보전을 위한 실천에 투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교회의 공동체나 신자 개인 차원의 다양한 활동은 『찬미받으소서』를 실천한다는 종교적 동기를 갖고 있지만, 그 실천이 이루어진 장소는 우리의 일상 삶 한가운데이다. 그동안 생태적 전환을 실천한 신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발생한 다양한 회심의 형태를 지금까지 검토한 회심 이론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은 보다 생생한 현장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21] 이 작업은 모호하거나 간혹 오도되기도 하는 '생태적 회개'의 개념에 관하여, 경험함의 차원으로부터 이해함과 판단함의 단계로 전개하는 로너간의 인식 방법을 따라가면서 실제로 발생하는 회심의 유형들 간의 상호 역동적 관계를 살피는 것이 될 것이다.

2.1. 지성적 회심으로부터 도덕적, 종교적 회심으로

지성적 회심은 사실관계를 보다 명료화하는 통찰로부터 시작되어 그 이해방식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회심론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역동적 관계는 사실관계의 이해방식에 관한 통찰과 관련된 지성적 회심으로부터 가치의 전환을 이루는 도덕적 회심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다음 사례는 이러한 회심의 발전 과정에 관한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 *a) 엄청난 에너지와 농약을 사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현대 농법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지구도 병들게 하고, 작물을 먹는 사람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b) 이러한 깨달음 때문에 나 개인이라도 유기농 방식으로 작물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텃밭 농사를 시작했다...*
> *c) 그러다가 경제 활동으로서 도시락 가게를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이왕이면 유기농 재료로 도시락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유기농 도시락 및 케이터링 사업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올바른 먹거리를 주제로 강사 역할도 하게 되었다...(사례 1)[22]*

---

21) 천주교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 협의회는 2023년 가톨릭 환경상과 사도직 단체인 하늘땅물벗의 실천사례 공모를 통해 수집한 26가지 활동을 담은 『공동의 집 지구 살리기 실천 사례집』을 편찬하였다: 『공동의 집 지구 살리기 실천 사례집』, 실천사례집편찬위원회, (2023). 이하 『실천 사례집』.

22) 『실천 사례집』, 8-13.

발표자는 a)의 단계에서 지구 위기의 원인에 관한 통찰을 넓혀가며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는 지성적 회심의 단계에 진입한다. 그 단계에서 발생한 통찰은 이어서 b)의 단계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전환하여 보다 선한 가치를 향한 결단을 자극한다. c)의 단계는 그러한 도덕적 회심이 사회적 단계로 진출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생업과 맞물려 전개되는 모습을 통해 회심자의 진정성은 더욱 드러나게 된다. 나아가 올바른 먹거리에 관한 강사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나누려 하는 것은 개인의 회심이 사회적 회심의 관계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례의 회심자는 도덕적 실천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자신의 종교적 배경에 힘입어 자신의 통찰과 실천이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관한 영적인 깨우침을 추구하게 된다.

d) 이런 나의 개인적인 고민과 노력 가운데 교황님의 「찬미받으소서」를 접하게 되었다. 그 책을 읽으며 우리 공동의 집을 보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특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먹거리를 건강하게 가꾸고, 그것을 먹고 서로 나눔으로써 자연과 인간을 회복시켜 가는 데 일조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사례 1)[23]

초월자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된 능력은, 자신의 앎과 행동이 초월자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과 관련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한 인식으로의 전환이란 어떤 특정한 행위 자체라기보다 그 사람의 특정한 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에 머무는 것으로 전환하는 종교적 회심에 관하여, 로너간은 이것이 신학의 범주에서 성화 은총(sanctifying grace)에 의한 역동적 상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24] 즉 종교적 회심은 하느님의 선물인 은총에 의해 발생하여 인간 의식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며, 그로 인해 그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는 행위에 있어서 종교적 열망으로 주체를 강화시키게 된다. 내가 하는 작은 실천이 하느님 안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은 생태적 실천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다시 도덕적 회심과 지성적 회심을 강화시키며 앎과 행동이 더욱 진정성 있게 되도록 고무하게 된다.

---

23) Ibid. 8-13.

24) Lonergan, *Method,* 289.

한 사람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다음의 사례는 이와 같은 회심의 역동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a) 9주간의 생태영성학교 교육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평소 어느 정도 느끼고는 있었으나, 교육을 통해 지구온난화, 기후 위기, 생태문제가 무척 심각함을 확인하고 정말로 지구가 병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b) 도심지의 하천은 주민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들의 공간이요, 자연과 함께하는 곳인 하천을 살리는 활동이 중요한 이유이다...
c) 지구 위기와 공동의 집에 대한 교황님의 회칙은 잔잔한 내 마음에 물결을 일으켜 환경 문제에 깊이 뛰어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매주 동영상을 시청하고 소감을 적으면서 그동안 내 개인적 삶이 스쳐 지나갔다. 회개와 반성의 시간이 된 것이다...
d) 하늘땅물벗의 대면 모임이 제한되는 가운데, 자연과 함께하는 기도 모임을 하기로 했다. 자연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고 벗들이 함께 지구 위기,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는 마음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쓰레기도 줍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e) 6주간의 '찬미받으소서 활동가 심화교육'을 수료하고, 행동으로 생태운동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천 정화 활동, 삼척 석탄화력발전 반대 시위, 광화문에서의 가톨릭 금요기후행동, 사순시기 거리 십자가의 길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였다...(사례 4)[25]

이 사례에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a)로부터, 생활의 주변에서 실천을 결단하게 되는 b)의 단계를 거쳐, 종교적 계기가 생태적 회개를 이끌게 된 c)의 단계까지의 흐름은 앞선 사례와 유사한 역동성을 보이지만, 그 바탕이 되는 정서적 차원이 종교적 회심의 동기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자연을 통한 생명의 리듬과 상호연결성을 의식하는 심리적 회심이 d)의 단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e)의 단계는 지성적-도덕적-종교적-심리적 생태적 회개가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위해 연대하는 사회정치적 회개로 이어지는 변화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순서의 흐름은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인식하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수세미를 만들어 보급하는 활동을 한다거나[26],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한 경험이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와 수질 개선을 위한 EM 보급 활동으로 이어진 것[27] 등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해당된다.

---

25) 『실천 사례집』, 23-27.
26) Ibid., 28-30.
27) Ibid., 60-68.

로너간은 회심에 관한 설명해 있어서 주로 지성적, 도덕적, 종교적 회심의 순서로 설명을 전개하였다. 그것은 위의 사례와 같은 순서의 흐름이 '관찰-이해-판단'으로 이어지는 인식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2.2. 종교적 회심으로부터 도덕적, 지성적 회심으로

그렇지만 회심이 항상 지성적-도덕적-종교적 단계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로너간 또한 자신이 전개해 온 회심의 유형에 관한 해설의 순서와는 다르게, 발생 순서에 있어서는, 꼭 필수적이지는 않더라도, 종교적 회심의 열매로 도덕적 회심이, 종교 도덕적 회심의 열매로 지성적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보다 통상적이라고 보았다.[28] 이와 같은 사례는 특히 이미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경우 생태적 회개에 관한 동기가 종교적 깨우침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a)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하시며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사랑하라고 하시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착취하고 훼손하였다.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다.(사례 6)[29]

b) 하느님께서 맡기신 이 땅, 우리 삶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사명임을 생각할 때, 본당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적극 활용하여 핵발전이나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전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사례 13)[30]

c)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면서 자연이 가진 생명력을 담은 식재료를 가지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자는 것이 출발점이 되었다. 처음에는 공동체가 함께 텃밭을 가꾸거나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즐거워 했는데, '이런 기쁨을 우리끼리만 누려서 될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었다.(사례 14)[31]

d)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은 인간이 자연과 맺은 관계, 나아가 하느님과 맺은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므로 농촌으로 귀향, 귀촌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나는 천주교 생태사도직

---

28) Bernard Lonergan, "Bernard Lonergan Responds,", *Foundations of Theology* ed. Philip McShane, (Dublin: Gill and Macmillan, 1971), 233-34.

29) 『실천 사례집』, 31-37.

30) Ibid., 69-73.

31) Ibid,, 74-80.

'하늘땅물벗'의 회원으로서, 어릴 때 살던 고향으로 귀향하여 시골살이를 한 지 만 2년이 되어 간다.(사례 25)[32]

사례 a)의 경우 성경의 창조 이야기로부터 얻어진 깨우침에 의해서 '생태적 죄'를 인식하였다. 그러한 회개가 "물질적 풍요에 편승해서 편리만 추구하는 시대사조를 거슬러 살아야 한다. 경제발전만으로 행복한 선진국이 되지 않으며 자연 훼손과 환경 파괴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질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가치의 전환을 가져왔다. 종교적 회심은 하느님과의 사랑에 머무는 가운데 세상에서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 b)의 사례는 생태적 전환을 위한 태양광 발전을 생태적 실천이 필요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인식한다.

한편 신자로서 평신도 공동체 삶을 사는 모임인 c)의 사례는 하느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라는 영적 동기가 사회적인 먹거리 운동, 아이들을 위한 생태교육, 아나바다 운동, 리필숍 운영 등으로 확대된 사례이다. 이 공동체는 사회적 활동을 더욱 넓혀 새만금 살리기 운동, 기후정의행진 등과의 연대로까지 넓혀나간다.

d)의 사례는 하느님 및 자연과 올바른 관계 맺음을 추구한 종교적 회심이 귀촌과 지역사회 운동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회심의 체험은, 마을 가꾸기 운동, 홈커밍데이 이벤트, 마을 운동가 모임 발족, 귀향 귀촌 운동 등을 전개하며 사회적 활동을 넓혔다. 이처럼 삶의 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결단이 요구되는 회심의 경우는 '지성적-도덕적-종교적'으로 상승해 가는 경우보다 종교적 회심에서 비롯된 가치의 변화가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심리적 회심과 사회적 회심

생태적 회개의 전반적 과정에 걸쳐서 지성적 작용과 정서적 작용을 연결하는 심리적 회심은 자연에 대한 감수성의 회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간은 몸과 마음과 영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존재로서 통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 것이다. 아래의 사례로부터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자연뿐 아니라 버려지고 소외된 것들과의 연결

32) Ibid., 134-140.

이 끊어진 상태에서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을 통해 일상에서 말을 걸거나 만남을 의도함으로써 단절로 부터 연결을 재구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a) 감꼭지나 토마토 꼭지를 보면 반짝반짝 별들이 미소를 짓는 것 같고 감 씨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빙그레 웃고 있는 성탄 구유가 보인다. 돌, 나무 열매 껍질, 조가비, 마른 풀, 하드바 막대, 나뭇가지와 잎사귀, 원두커피 가루 찌꺼기, 심지어 다 자란 달력 종이, 각종 씨앗 안에서도 다른 의미들이 말을 걸어온다...(사례 3)[33]

b) 자연물과 재활용품들에게서 떠올려지는 이미지들은 나의 손을 거쳐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 태어난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무심코 지나치고 버려지는 것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소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것들이 사랑과 기쁨을 선사하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써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릴 뿐이다.(사례 3)[34]

c) 노인 공경의 차원에서 전의 요셉의 집을 방문하여 건물 대청소를 하고 어르신들 발맛사지와 어르신들의 말벗을 해 드리는 봉사를 하였다... 지체부자유 학생들을 매월 1주 방문하여 대청소 및 분리수거를 해 주고.. 이를 통해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사례 12)[35]

심리적 회심은 감정적 편견의 극복과도 관련된다. 찌꺼기, 쓰고 버리는 폐기물은 무의식 적으로 더러운 것으로 인식되지만 그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것에서 나아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승화하는 깊이를 보여준다. 또한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마음은 어린 학생들이 노인과 장애인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확장되어 무의식적으로 단절되어 있던 모든 편견들로부터 놓여나는 마음의 재정향을 얻게 된다. 심리적 회심은 로너간이 지성적-도덕적-종교적 자기 초월의 과정으로 파악한 다양한 회심과 더불어 진·선·미 차원에서 회심의 진정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이외의 타자에 대하여 더 큰 개방성으로 진출하는 심리적 회심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공동선에 대한 더 큰 헌신을 불러옴으로써 사회적 회심으로 진출하게 된다. 즉 사회적 회심은 개인에게서 발생하지만 사회적 연대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반성적으로 사회 제도를 받아들이던 태도로부터 다른 이들과의 사회적 연대를 이루

33) Ibid., 20-22.
34) Ibid., 20-22.
35) Ibid., 12. 지구를 지키는 청소년, '라온제나'. 60-68.

어 불의한 구조를 개혁하려는 노력에 투신하고자 하는 것이다.[36] 생태적 회개에 있어서도, 개인의 지성적 회심의 결과 위기의 원인이 구조적인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면서 생태정의 차원에서의 도덕적 회심이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회심은 진정성을 갖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아래의 사례들은 생태적 회개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a) 지역에서 자체 발전하는 방법은 발전소나 송전탑의 건설로 인한 현지 주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길이기도 하다. 비용이나 경제성을 따지기에 앞서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이상 자구 자원을 약탈하지 않고 보전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사례 13)[37]

b) 새만금 지역을 수시 방문하여 지역 환경 단체들과 새만금 갯벌 걷기도 하였고, 타 가톨릭 단체들과 함께 삼보일배에도 참여하였다. 새만금 반대 서명운동도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최근 심각해진 기후 변화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기후 정의 행진에도 참여하고 있다.(사례 14)[38]

c)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EM으로 흙공을 만들고 10일 후에 갑천에 던지는 행사를 하는 등 환경 정화 운동을 하고 있다.(사례 12)[39]

d) 하천 정화 활동; 삼척 석탄화력발전 반대 시위, 광화문에서의 가톨릭 금요기후행동; 사순시기 거리 십자가의 길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였다.(사례 4)[40]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의 구체적 참여란 어떤 구호보다도 강력하게 진정한 존재의 변화에 기여한다. 위의 사례들은 생태 문제를 인식하고 가치를 전환하기 시작한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생활 터전에서 공공의 하천을 돌보고, 화력발전의 문제를 알리고, 종교적 행사를 사회적 차원에서 거행한 모습을 보여준다. 모든 종류의 회심은 서로 다른 형태의 회심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동을 위한 가치를 자극하거나 생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간다. 특히, 사회적 회심은 개인의 회심을 보편적 도덕의 지평으로 끌어가며 공동체적 존재로서 인간에게 회심이 진정한 의미를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한다.

---

36) 심종혁, 「Donald L. Gelpi」, 10.
37) Ibid., 69-73.
38) Ibid., 74-80.
39) Ibid., 60-68.
40) Ibid., 23-27.

3. 『찬미받으소서』와 생태적 회개

『찬미받으소서』는 하느님이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가 인간에 의해 손상을 입고, 그 결과 프란치스코 성인이 누이라고 지칭한 대지가 지금 울부짖고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죄로 상처 입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폭력"에 의한 것이며, 흙과 물과 공기와 모든 생명체의 병리 증상에도 드러나 있는 그 폭력으로 인해 "*땅은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LS 2)라는 인식에 의해 환경 파괴를 인간의 죄와 분명하게 연결하고 있다. 회칙은 이 파괴를 "*우리 자신과 하느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LS 8)라고 보았다. 죄는 회개를 요구한다. 특히 공동의 집인 지구를 파괴한 죄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생태적 덕목들*"(LS 88)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확고한 덕을 기르는 것에서 시작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생태적 사명에 헌신할 수 있다.*"(LS 211)고 회칙은 제안한다. 이러한 덕의 육성이란 진정한 회심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3.1. 회심론과 『찬미받으소서』

지성적 회심

『찬미받으소서』는 1장(17-61항)의 내용을 통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생태 위기에 관한 시대적 징표를 기술하며 "*많은 과학적 연구는 최근 수십 년간의 지구 온난화가, 대부분 인간 활동의 결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때문에 주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LS 23)라고 언급하며 과학적 탐구 방식이 세계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이 있음을 긍정한다. 그것은 인간중심 패러다임의 문제점이 과학적 사실로도 입증되고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서 회칙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과학적 사실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과학과 종교는 각자의 고유한 현실 접근 방식으로, 서로에게 생산적인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LS 62)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회칙은 기술 지배 사회의 사실 관계의 인식 패러다임의 문제점에 관하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며 초월적 창조주를 의식하는 종교적 접근 방식과의 대화를 제안한다. 회칙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 세계의 많은 문제점이 "*무엇보다도 개인의 삶과 사회의 기능을 좌우하는 인식의 패러다임에 따라 과학과 기술의 방법론과 목적을 설정하려는 경향에서 비롯*"(LS 107)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생태 위기의 근본 원인이 과학과 관련된 인

식론 즉 기술 지배 패러다임과 관련이 있으며, 그러므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지성적 회심이 요구된다. 이는 생태적 회개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관한 명확한 통찰을 위하여 인식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된 지성적 회심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그동안 일방적이었던 기술 지배 패러다임이 창조주를 의식하는 종교와 대화를 통해 사실 관계의 인식 방법에 관한 상호보완성을 증진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덕적 회심

인간의 느낌은 가치와 그 가치에 관한 선호의 정도에 따라 반응한다. 로너간은 이러한 가치를 상승하는 순서에 따라 생명적,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종교적 가치로 구별하였다.[41] 『찬미받으소서』는 생태적 회개의 측면에서 이러한 다양한 단계에서의 가치의 전환을 제시한다.

생명의 가치에 관하여, 먹이 사슬 안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유독성과 그 유독 물질이 몸속에 축적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LS 21), 환경 파괴로 인한 오염과 기후 변화는 "*가장 가난한 이들의 건강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끼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일찍 사망하게*"(LS 20)되는 원인이 된다는 인식으로 전개된다. 이것은 생명의 가치가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을 포함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선적 가치로 선택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환경적 불의에 취약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양질의 음용수를 마실 수 있는 조건이란 생명을 위한 보편적 권리[42]임을 강조한다.(LS 27-31)

프란치스코 교종은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LS 49)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둘 모두 우리의 과소비의 결과로 기본적인 생명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 의한 착취가 광범위하게 자행된 지구의 자연 자원을 교회의 우선적 가치인 '가난한 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인간을 중심으로 하던 '가난한 자'에 관한 인식은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는 차원으로 전환한다. 기후 변화가 그 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식물에 영향을 주고 결국 가난한 지역 주민의 생존 수단을 위협한다(LS 25)는 인

41) Ibid., 31.
42) "물에 대한 접근권은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권"(LS 30).

식은 단지 인간 생명의 가치문제에 집중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사랑과 존경으로 소중히 다루어야"(LS 42)하며, 생태계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의 감소(LS 32-42)는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회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에 있어서(LS 101-106) 그 배경이 되는 문화적 차원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회칙은 개인의 삶과 사회의 기능을 좌우하는 인식의 패러다임이 과학 기술의 방법론과 목적을 따라 설정되는 경향(LS 107)을 일컫는 기술 지배적, 기술적, 혹은 기술-경제적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 회칙은, 이 기술 지배적 문화가 개인의 삶과 사회의 기능 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고자*"(LS 109)하는 경향을 가지며 "*소비의 자유를 누리는 한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도록*"(LS 203)하는 문화를 형성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세상을 하나의 커다란 기계로 생각하도록 사고를 이끌고 인간 이외의 자연을 정신적 가치가 제외된 도구적 존재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현대의 실질적 무신론 문화를 비판하고 있다.

회칙은 '문화 생태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토착 공동체의 문화 전통에 각별한 가치를 두고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LS 146) 땅은 상품이 아니라 하느님과 그곳에 묻힌 조상들의 선물이므로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의 정체성과 가치를 결정짓는 거룩한 자리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한 문화는 "*더 큰 책임감, 더 강한 공동체 의식, 특별한 보호 능력, 더 많은 창의력, 자기 땅에 대한 깊은 사랑을 이끌어 낼 수 있다.*"(LS 179)고 보았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다른 시각, 사고방식, 정책, 교육 계획, 생활양식, 영성*"(LS 111)을 갖는 생태 문화로의 전환을 통해 기술 지배 패러다임의 문화에 대항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인간의 '과대망상'으로 잃어버린 중요한 가치를 되찾는 "*대담한 문화적 혁명*"(LS 114)으로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와 연관된 도덕적 회심을 강조하였다.

종교적 회심

프란치스코 교종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보편적 친교와 친밀함의 깊이를 강조하기 위해 복음의 기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하느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긴밀하게 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토양의 사막화를 마치 우리 몸이 병든 것처럼 느끼고 동식물의 멸종을 우리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낍니다."(LS 89/EG 215)

육화하신 그리스도를 하나의 인간 개체로 육화하신 것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물질과 문명 및 정신을 통해서 세상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진 인간 조건을 통하여 이미 세상의 모든 생명과 물질로 육화하신 것이라는 그리스도론의 확장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 세계의 거룩함을 인식하도록 돕는다.[43] 생태적 회개는 모든 피조물의 거룩함을 받아들이고 자연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도록 도우며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여 인식한다. 이것은 하느님과의 깊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간을 위한 환경 보호나 단순한 생태감수성과는 다르다.

『찬미받으소서』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하느님과의 사랑의 충만함에서 비롯하여 자연과의 친밀함과 가난한 생활 양식을 실천한 최고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그의 삶이야말로, 피조물에 대한 순진한 낭만적 태도가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종교적 회심이 자연에 대한 관심과 가난한 사람을 향한 정의 그리고 사회에 대한 헌신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진정한 인간다움을 실현한 것이라고 보았다.(LS 11) 더 큰 자기로의 초월과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종교적 회심은 우리의 무감각한 소비 패턴과 버리는 문화를 비롯한 삶의 양식을 바꾸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기희생에 기꺼이 도전하는 결단을 내리게 함으로써, 신앙의 프락시스 차원으로 발전하는 생태적 회개를 이끌게 된다.

『찬미받으소서』는 '생태적 회개'(LS 216-21)를 통해 종교적 회심 차원에서의 생태적 회개의 주제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 생태적 회개가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실*"(LS 217)에 기인한다는 부분에 주목하여 그것이 그리스도교 안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영성은 육체나 자연 또는 세상의 실재에서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일치를 이루며 그 안에서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LS 216)이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회칙의 전반적 맥락은 회개의 차원을 일상 안에서의 삶과 연결된 보편적 영역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한 회개는 자신의 죄와 악습, 태만을 인정하는 내적 변화로서의 회개(LS 218)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우주적 친교를 이루고 있다(LS 220)는 의식을 수반하는 것이다. 또한 종교

43) 홍태희, 「깊은 육화와 생태 사도직 실천」, 『신학과 철학』, 41(2022.8), 73-98.

적 회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회개의 이 차원을 분명히 드러내어, 우리가 받은 은총의 힘과 빛이 다른 피조물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맺는 관계에서도 펼쳐지기를 바랍니다.*"(LS 221)라는 권고와 같이 도덕적 회심과 지성적 회심의 주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회심

『찬미받으소서』는 특별히 지구를 포함한 생태 공동체 전체의 생명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생태 정의 차원에서 인식한다. 공동의 집으로 지칭한 지구의 모든 피조물이 적절하게 살기 좋은 환경에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생태적 관심을 포함한 사회적 차원의 회심이 생태적 회개의 의미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은 기술, 경제, 정치, 그리고 종교 기구의 정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 기후 위기에 관한 세계 기구들의 정책에 동참하도록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재생 에너지와 같이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적정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기술은 멀리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생태적 회개는 공동체의 회개이기도 합니다.*"(LS 219)라는 말로서 사회적 회심이 생태적 회개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국가별 탄소중립 목표와 기한을 국제사회에 제출토록 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권고와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충당하겠다는 기업의 자발적 약속 등 탄소중립에 관한 국제적 실천들을 고무함으로써 사회적 영역에서 생태적 전환이 현대 사회의 우선 가치가 되도록 촉구하고 있다. 2020년 12월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달성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한 바 있으며, 수원교구는 2030년까지 교구 내 모든 본당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자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매년 2,000KW의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 등은 교회가 사회적 차원에서의 생태적 회개를 실천하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생태적 회개의 범위

교종은 회칙의 216-221항에서 '생태적 회개'를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실이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LS217)라고 설명한다. 종교적 의미를 갖는 생태적 회개는 삶의 변화의 근원을 예수

님과의 만남에 둔다. 그 만남의 결실로 우리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피조물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환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찬미받으소서』가 전하는 생태적 회개의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생태적 전환이 단지 그리스도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회칙의 큰 주제 중 하나인 통합생태론을 통하여 드러난다.

회칙은 현대의 인간이 인식과 가치를 전환해야 할 이유를 20-52항에서 시대의 표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가장 가난한 이들의 건강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끼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LS 20),*
> *"쓰레기와 더불어 유해한 폐기물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LS21),*
> *"기후 변화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환경, 경제, 정치, 재화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비극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하고 있습니다."(LS 25),*
>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접근권은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권"(LS 30)*

이러한 표징을 단지 인간에게 닥친 인간을 위한 문제로 인식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피조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사랑과 존경으로 소중히 다루어야*"(LS 42)하며, 생태계 전체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의 감소(LS 32-42)는 피조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특히 인간만을 생각한 쓰고 버리는 문화는 지구 생태계의 생명력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LS 49)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교종은 회칙에서 "*육체나 자연, 또는 세상의 실재에서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일치를 이루며 그 안에서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LS 216) 영성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러한 전환은 "*자신의 죄, 악습, 태만의 인정, 그리고 참된 회개와 내적 변화*"(LS 218)로 이끌며, "*다른 피조물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우주적 친교를 이루고 있다*"(LS 220)는 의식을 수반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회개의 이 차원을 분명히 드러내어, 우리가 받은 은총의 힘과 빛이 다른 피조물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맺는 관계에서도 펼쳐지기를 바랍니다.*"(LS 221)라고 밝힘으로써, 생태적 회개란 개인의 내적 의식과 영성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적 우주적 차원을 포괄하여 확장되는 인식과

가치 지평의 전환임을 밝히고 있다.

『찬미받으소서』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종교적 차원에서 생태적 회개를 제기하였지만, 그것을 특수한 종교의 감수성이나 지식 혹은 가치에 한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생태적 회개는 종교적 차원뿐 아니라, 자연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비롯하여 인식 지평의 변화와 가치 판단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도덕적, 지성적, 심리적, 사회적 회심의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가기

신약성경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된 명사 '메타노이아'(μετάνοια)와 동사 '메타노에오'(μετανοέω)는 단순한 참회와 마음의 변화 그 이상을 의미한다. 루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두드러지게 언급되는 메타노이아는 그리스도를 향한 유다인과 이방인의 '돌이킴', 즉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44] 그것은 마음의 돌아섬을 포함하여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행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적 회개'에 관한 용어의 문제에 있어서[45], 주로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회개'(repentance)보다 실존적 변화를 의미하는 conversion으로서 '회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또한 생태적 회개란 전인격적 전환을 의미하는 회심론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여겨진다.

회심론은 주체의 전환이 일어나는 유형에 관하여 다양하게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지만, 이 회심의 유형들은 서로를 부정하거나 방해하는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기반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종교적 회심은 초월자와의 사랑에 기초한다는 측면에서 지성적, 도덕적 회심과는 다른 형태이지만, 그것을 방해하지 않고 능가하여 인식과 행동 측면에서

---

44) 이에 관한 성경의 용례는 "이제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 주셨다."(사도 11,18), "나는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20,21), "다른 민족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26,20) 등 특히 루가 문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45) 『찬미받으소서』의 원문에는 생태적 회개가 'conversio oecologica'(이탈리아어), 'ecological conversion'(영어)으로 표기되어 있다.(219항), 통상적으로 repentance의 의미로 사용되는 '회개'라는 용어보다 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회심'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새로운 기반을 제공한다. 창조주 하느님을 의식하는 신앙은 생태적 회개에 있어서 결정적 동기를 제공하는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리 교육이나 성사 생활 및 전례가 우선 전통적 인간중심의 틀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나 '피조물과 함께 하는 미사'와 같은 전례 용어 사용 자체로도 많은 영감을 주지만, 전례와 미사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요청된다. 또한 생태 위기라는 현대의 새로움을 포함하는 교리 교육은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사를 포함하는 선교적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가치의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새로운 실존을 제시하는 도덕적 회심은 선을 향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로부터 발생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성적 회심 혹은 종교적 회심에 의해 동기가 추진되어 그것을 포함한다. 진리와 정의, 개인의 이상과 관련된 도덕적 원칙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포괄하며, 그러므로 도덕적 회심은 인간의 양심과 공적인 도덕성으로 사회의 구조적 악에 도전할 수 있는 결단을 촉진한다. 이 과정에서 통찰을 동반한 지성적 회심과 영적으로 회심한 사랑의 마음은 도덕적 회심이 진정성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작용을 주고받는 역동적 관계를 갖는다. 특히 생태적 회개의 원인이 되는 생태 위기가 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적 사실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사실관계를 진정성 있게 파악하려는 지성적 회심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로너간은 회심에 관하여, 그것이 객관적 타당성을 얻게 되는 것은 회심자의 진정함을 통해서라고 강조한다. 참다운 통찰을 향한 열망, 자기만족에서 가치 지향으로의 탈바꿈, 창조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은 진정한 인격을 통해 드러난다. 참다운 회심이란 이러한 여러 형태의 회심의 과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주체 자신이 진정하지 못함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46] 지속적인 자기 초월 과정의 진정함이며, 그 과정을 통하여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다. 본고의 실천 사례들은 온전한 형태의 회개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유형의 생태적 회개 과정을 통과해 가는 신앙인 개인 혹은 집단이 진정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6) Lonergan, *Method*, 104; 110; 252.

세계 전체에서 일어지고 있는 생태적 전환 운동은 교회의 활동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태적 전환 운동에 함께하도록 부름 받고 있으며, 그 안에 그리스도인 고유의 방식이 존재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향한 사랑의 하느님을 증언하는 것이다.[47] 따라서 생태적 회개가 이벤트성 자연보호 활동이나 구호 외침 자체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과정이 회심자 각자의 깊은 성찰과 통찰, 그리고 하느님 사랑에 일치하는 존재의 변화 모두가 함께 하는 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47) Denis Edwards, *Ecology at the Heart of Faith: The Change of Heart that leads to a new way of Living on Earth,* (New York: Orbis Books, 2006), 3.

참고 문헌

Bernard Lonergan, *Method in Theology*, Lonergan Research Institud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0.;『신학 방법』, 김인숙·이순희·정현아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2.

_____, *Foundations of Theology: Papers from the International Lonergan Congress 1970*, ed. Philip McShane, Dublin: Gill and Macmillan, 1971,

Doran, Robert, "What Does Bernard Lonergan Mean by 'Conversion'?" https://www.lonergamesource.com/media/pdf/lectures/What Does Bemard Lonergan Mean by Conversion.pdf, University of St Michael's College, Toronto, Ontario, Canada, 2011.

Edwards, Denis, *Ecology at the Heart of Faith: The Change of Heart that leads to a new way of Living on Earth*, New York: Orbis Books, 2006.

Ormerod, Neil·Vanin, Christina, "Ecological Conversion: What Does it Mean?", *Theological Studies*, Vol.77(2), 2016, 328-352,

White, Lynn Jr., "The Historical Roots of the Ecologic Crisis." Science, Vol. 155. (1967, Mar.), 1203-1207;「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기원」, 이유선 역,『과학사상』(1992, 봄), 283-295.

변희선,「버나드 로너간의 회심에 관한 소고」,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신학전망』(125), 1999.6.

심종혁,「Donald L. Gelpi의 회심이론과 그 성격」,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신학과철학』13(2008), 1-24.

천주교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공동의 집 지구 살리기 실천 사례집』, 실천사례집편찬위원회, 2023.

프란치스코 교황,『찬미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교황 회칙』(Laudato Si'), 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2021.

홍태희,「깊은 육화와 생태 사도직 실천」,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신학과철학』, 41(2022.8), 73-98.

초 록

생태적 회개의 의미와 그 유형의 관계적 이해: 『찬미받으소서』와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홍태희 · 김문영

『찬미받으소서』에서 제시된 ‘생태적 회개’의 의미는 전인격적인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버나드 로너간이 제시한 회심론에 따라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명료화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로너간이 제시한 지성적 회심, 도덕적 회심, 종교적 회심과 함께, 젤피가 보다 구체화 시킨 사회적 회심과 도란의 심리적 회심에 관하여 생태적 회개에 있어서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생태적 회개는 사실관계의 인식에 관한 패러다임에 있어서 인간중심으로부터 모든 생태계를 포괄하는 피조물 중심으로 전환하는 지성적 회심이 요구된다. 또한 물신주의로부터 생명과 문화의 생태적 가치로 전환하는 도덕적 회심은 실천의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월적 존재와의 초자연적 사랑에 빠지는 종교적 회심은 창조주의 의지를 따라 피조물과의 보편적 친교를 깊게 한다. 이러한 회심의 바탕에는 의식의 흐름과 관련되어 규범과 편견 등의 내적 저항을 극복하는 심리적 차원이 있다. 사회적 회심은 생태적 전환이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촉진함으로써, 생태정의 차원의 사회적 소명에 투신하게 이끈다.

실천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다양한 회심의 유형들이 서로의 기반이 되어주며 역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통상 지성적 회심으로부터 도덕적 회심, 종교적 회심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종교적 회심이 도덕적, 지성적 회심의 동기가 되어 의식의 전환과 소명감을 강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참다운 회심이란 지속적인 자기 초월을 통과해 가며 진정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생태적 회개는 단순한 환경보호나 일회적인 깨우침으로 축소될 수 없다. 그러므로 『찬미받으소서』에서 강조된 생태적 회개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전인격적인 방향전환인 신앙의 ‘메타노이아’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생태적 회개, 찬미받으소서, 버나드 로너간, 회심론, 생태 사도직.

The meaning of 'Ecological Conversion' and a relational understanding of its Types: Focusing on 「Laudato Si'」 and Practice Cases

Hong, Tae-Hee · Kim, Moon-Young

Since 'ecological conversion' presented in 『Laudato Si'』 means a holistic change of personality, it is necessary to analyze its meaning according to the conversion theory. Along with the intellectual conversion, moral conversion, and religious conversion presented by Lonergan, the social conversion embodied by Zelpie and the psychological conversion of Doran were analyzed for ecological conversion. Ecological conversion requires an intellectual conversion that shifts the paradigm of understanding facts to a creature-centered one. Also, moral conversion from fetishism to the ecological value of life and cult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actice. Religious conversion deepens universal communion with the creature. On the basis of this conversion, there is a psychological dimension that overcomes internal resistance such as rules and prejudices in relation to the flow of consciousness. Social conversion promotes ecological transformation at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level. In the practice cases of ecological conversion, we can see that these various types of conversion become the basis for each other and occur dynamically. It is general to proceed from intellectual conversion to moral conversion and religious conversion, but in reality, religious conversion becomes the motivation for moral and intellectual conversion. Therefore, it would be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ecological conversion emphasized in Laudato Si' as the meaning of 'metanoia', a change of holistic personality through encountering Christ. It

can be seen that ecological conversion is distinguished from one-time enlightenment in that true conversion is a process of going through continuous self-transcendence and finding authenticity.

Key Words: Ecological Conversion, Laudato Si', Bernard Lonergan, Conversion Theory, Ecological Apostolate.

논문 투고일	2023년 7월 7일
논문 수정일	2023년 8월 3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3년 7월 28일